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135>

JCCT 2022-11-15

치매환자의 치유농장 프로그램 이용 후 환자보호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are Givers with Dementia Patients after using the Care Farm Program

홍보균*, 정민예**

Hong, Bo Kyoony*, Jung, Min-Ye**

요약 우리는 본 연구에서 현재 우리나라 치유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경험한 치매 대상자의 환자보호자로서의 경험과 느낌을 인터뷰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장점 및 단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치유농장 프로그램 및 운영에 있어서 개선점과 프로그램의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의 치유농장 이용, 거주지에서 치유농장으로 이동하는 접근성문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연속성, 그리고 계절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의 치유농장에서 치유농업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에게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초기 치매 환자의 이용문제, 접근성, 다양성, 연속성, 계절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 치유농업, 녹색치유, 치매, 환자보호자, 질적연구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are farm program that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a pilot in a care farm in Korea, interviewed the experiences and feelings of dementia patients who experienced this as a patient care-giver, and confirm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are farm program. Accordingly, we investigated the points for improv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in the care farm program and operation. In particular, opinions are gathered on the use of a care farm in the early stages of dementia, accessibility issues from residence to the care farm, continuity of various programs and programs, and development of seasonal content. In order to develop a program related to care agriculture for dementia patients by using healing agriculture in future care fa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such as use problems, accessibility, diversity, continuity, and seasonality of early dementia patients.

Key words : Care Farm, Green Care, Dementia, Care-Giver, Qualitative Case Study

1. 서론

2021년 기준, 전 세계 추산 5천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매년 거의 천만 명의 새로운 치매환자가 발생

하고 있다[1]. 전체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는 2030년에는 8천2백만 명, 2050년에는 1억5천2백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저 소득 및 중산층 나라에서 추정되는 수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1]. 우리

*정희원, 경북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1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19,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hongbokyoony@gmail.com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 Korea

나라에서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7백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치매노인은 약 70만 명으로 10.15%로 추산하고 있다. 치매 인구가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백3십7만 여명, 2050년에는 약 3백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초기 치매의 문제점은 인지적 변화, 정신과적 증상, 성격변화 문제행동,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능변화로 특히 정신과적 증상에서는 우울증, 불안, 불면증 성격변화에서는 무관심, 사회성 결여를 주요증상으로 볼 수 있다[3]. 최근 치매 노인에게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 치유농업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치유 농업은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용어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을 의미하고 있다. 즉 치유농업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4]. 치유농업에는 기존의 농업, 원예(조경), 자연, 동물사육과 축산업 그리고 전통적 의료서비스의 장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치유농업에는 수동적(자연환경 경험), 상호작용적(자연요소 상호작용)으로 나뉘며, 수동적 접근에는 치료 또는 치유, 직업제공, 녹색운동 치료, 자연치유, 황야 치유 등으로 분류되고, 상호작용적 접근으로는 사회적, 치료적 원예치유, 시설환경 자연, 에코테라피, 원예치료, 치유농장, 동물매개 상호작용, 동물매개 치료로 나뉘고 있다[5]. 모든 치유 농장은 ‘농사’와 ‘돌봄’의 균형을 제공하려고 하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농장 가축, 식량 재배 및 / 또는 원예 활동과의 치료적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6]. 따라서 돌봄 농업은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을 만들기 위해 식물, 동물 및 경관을 활용하는 활동에 대한 집합적인 용어인 보다 광범위한 ‘그린 케어’ 운동 내에 위치합니다[7]. 농장에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우울증과 단계별 불안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9]. 또한 농장기반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은 사회적 지원 경험, 낮은 우울감, 농장에서의 야외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0].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있어 힐링가든은 감각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기억과 감정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11]. 건강상태, 자신감, 문제에 대처

하는 능력, 책임감, 의미 경험 및 신체 건강 및 사회적 기술 향상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2]. 네덜란드에서는 치유농장에서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많이 참여하고 야외활동이 자주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13]. 국내 노인 요양기관에서도 야외에서 활동하는 가드닝 프로그램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증에 개선을 보였다[14]. 또한 치유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한 대상자의 보호자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농장 프로그램 및 운영에 있어서 개선점과 프로그램의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본연구의 필요성은 국내 치매노인을 위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유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장의 프로그램의 경험을 토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4주에 걸쳐 경기도 A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인터뷰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전화 인터뷰를 통한 개방식 질문의 답을 정리하였다. 30분씩 3번, 총 90분 소요하여, 각 대상자에게 3번 전화하여 개방식 질문을 통해서 녹음 후에 녹음한 내용을 파랑새 2.0 소프트웨어로 내용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치유농장 프로그램 실시 후에 느낀점, 장점, 단점 등 자유롭게 치매 대상자 보호자 입장에서 경험한 것들 이야기 한 것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파랑새 2.0을 이용한 하여 자료 내에서 패턴화된 반응이나 의미 수준을 기술하였고, 주제를 분석하고자 주제 분석 6단계를 따랐다[15].

3) 연구 윤리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인터뷰를 대신하여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서면동의를 면제를 받았고, 연세대

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승인(승인번호: 1041849-202109-SB-150-01)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의 이름 대신 가명 및 ○*○의 형태로 이름을 기술하였다.

III. 결 과

1. 치매 초기 단계의 치유농장 이용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만 계신 치매 중증도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닌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대상자들이 치유농장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에서의 치매 초기 단계의 노인들은 아무래도 집에만 계시거나 지역 치매지원센터나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정도의 집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만 참가하고 있다.

정*자: “거동하시거나 어디 프로그램 다니시는 것은 괜찮아요.”

이*자: “아무것도 안하는데 핸드폰 들고...”, “주민등록 하는 것 잘해요.” “운전도 하시고 잘하세요.”

문*남: “귀가 잡워서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요.”, “다른 일상에서 지내시는 것은 문제없어요.”

김*숙: “아직은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으세요.”

2. 치유농장의 접근성

특히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받을 수 없다.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지만 참석하는 방법, 스스로 자가 운전을 해서 치유농장에 올 수 있는 참석자 이외에는 운송여부가 중요했다. 운송여부가 확실하다면 많은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할 의향을 보였으며 다른 대상자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정*자: “동네에 치매 어르신이 있으셔서 다시 치유농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해서 같이 갈 생각이 있어요.”

문*남: “모셔가야지. 차가 없으면 못해요.”, “벼농사 끝나서 할 일 없으니 프로그램 있으면 가지요.”, “소개도 해주지요 모.”

3. 프로그램의 다양화

단순히 농장 콘텐츠를 이용한 활동은 집에서 텃밭활동이나 농사활동과 별다른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존에 치매 프로그램에 경험을 갖고 계신 대상자들이 주를 이룬 활동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요청을 했다.

이*자: “활동 생각 이야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지능력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어요.”

4. 실외 활동 중심의 치유농장

실내와 실외 프로그램 중에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걷거나 활동적인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다.

정*자: “실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김*숙: “아무래도 실외가 좋았어요.”, “농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았어요.”, “눈이라도 공기라도 좋았어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관심이 없었어요.”

5. 결과물의 연속성

프로그램 결과물은 작은 식물 화분, 꽃꽂이 화분, 압화 결과물을 집으로 가져가셨는데 이들 모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결과물들이 추후에 죽음으로써 집으로 가져가서 관리하고 식물과 동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이*자: “죽었어요.”, “주신 허브나 화초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남: “몇 개만 살고 다 죽어버렸어.”, “물 줘도 죽고...” “내말은 안 듣더라고요.”, “워낙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말을 안 들어요.”

김*숙: “잘 크고 있고 안 죽었어요.”, “조화는 문제가 없는데 생화는 그래도 신경써서 잘 크고 있어요.”

6. 계절에 맞는 콘텐츠 개발

치유농장에서 계절에 맞는 작물을 소개하면 그 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봄, 여름, 가을에 계절별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콘텐츠를 만들고 프로그램 구성의 소재로, 잘 관리된 작물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대상자 및 이용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문*남: “봄에는 식물 심기, 여름에는 상추, 고추 따기,

가을에는 과실 따서 함께 먹기, 겨울에는 온실에서 활동하기 등이 좋지요”, “계절별로 하는 거 좋아요.”

김*숙: “농사짓는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회용 프로그램보다는 텃밭, 주말농장처럼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분들은 것 같아요.”

IV. 논 의

치유농업은 북유럽과 영국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린 케어 농업', '사회적 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으로도 알려져 있다[16]. 이런 치유농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단계에 있으며 국가를 기반으로 2010년도 초·중반부터 적용사례가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치유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농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제공 가능한 자원(예: 동물, 식물 및 경관)으로 이 자원을 사용하여 사회적 또는 교육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이나 육체만큼 웰빙을 증진하는 것이다[17]. 치유농장에서 적절한 자원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18]. 특히 자기 효능감 개선에 중요성은 전달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이런 자기 효능감이 개선되는 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신체운동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본능적으로 다른 일상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19]. 또한 적당한 신체 활동은 여가 활동 참여조차도 정신 기능과 치매 발병에 예방효과를 줄 수 있다[20].

지역사회에서 각 지역에서 특화된 치유농장의 형성은 지역에서의 치매노인에 대한 하나의 치료적 요소로 부각될 수 있고, 이런 사회서비스의 증가는 지역사회에서의 치매 증상의 발병에 대한 보조적 요소로 간주된다[21].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치유농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특화된 자원으로 치매노인에게 사회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치유농업을 치매노인에게 제공할 때는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초기 지역사회에서 농장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농장 또는 체험농장을 발전시켜 치유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치매 노인을 주대상자로 정한다면 첫째, 치매 초기단계 노인을 주 고객으로

정하고 치유농장이 치매 노인 시설이나 혹은 치매 어르신들의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 혹은 송영 서비스를 실시하여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실외에서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장에서 주 자원과 신체활동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계절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봄·여름·가을·겨울 각각의 철에 맞는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각 계절에 맞는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매 대상자의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자원을 활용하고 그 자원을 결과물로 집으로 가져 갈 때 집에서 어떻게 식재료 혹은 관상용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식물을 관상용으로 쓸 때 집으로 가지고 가서 죽게 되면 치매 노인의 실망감이 크게 나타났다.

치유농업에서 대상자를 선택하는 일은 치유농장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농장주 혹은 치유농업사2급 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또는 치매 대상자는 농장주, 치유농업사 이외의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자에게 농장의 자원을 이용하여 치료에 적용 한다면 보건의료인 중에 작업치료사에게 그 자체가 하나의 도구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유농업을 치료의 도구로써 사용한다면 치료 활동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치료사에게 정원 가꾸기와 치유농업에서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실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22].

V. 결 론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치매 분야에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치매 노인의 치유농업의 적용은 작업치료사가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효과성의 증거를 제공하는데 미미한 실정이다.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전에 치매 노인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mentia>
- [2]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Korea Dementia Observatory, 2019.
- [3] K. S. Santacruz and D. Swagerty, “Signs and Symptoms That May Indicate the Need for Evaluation for Dementia,”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 63, Iss. 4, pp. 703–13, 717–8, Feb 2001.
- [4] Rural Development.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Understanding of Agro-Healing(Care Farm), 2016.
- [5] H. Elsey, T. Farragher, S. Tubeuf, R. Bragg, M. Elings, C. Brennan, R. Gold, D. Shickle, N. Wickramasekera, Z. Richardson, J. Cade, and J. Murray, “Assessing the Impact of Care Farms on Quality of Life and Offending: A Pilot Study Among Probation Service Users in England,” *British Medical Journal Open*, Vol. 8, pp. e01929, Jan2017. <http://dx.doi.org/10.1136/bmjopen-2017-019286>
- [6] R. E. Hine, J. Peacock, and J. Pretty, “Care Farming in UK : Evidence and Opportunities,” University of Essex, Colchester, UK, Jan 2008.
- [7] Natural England, “A Review of Nature-based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Care,” Feb 2016.
- [8] B. Berget and B. O. Braastad, “Animal-assisted therapy with farm animals for persons with psychiatric disorders,” *Annali dell’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Vol. 7, No. 4, pp. 384–390, 2011. https://doi.org/10.4415/ANN_11_04_10
- [9] I. Pedersen, E. W. Martinesen, B. Berget, and B. O. Braastad, “Farm Animal-Assisted Intervention for People with Clinical Depres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throzoo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The Interactions of People & Animals*, Vol. 25, No. 2, pp. 149–160, Apr 2015. <https://doi.org/10.2752/175303712X13316289505260>
- [10] T. L. Ibsen, Ø. Kirkevold, G. G. Patil and S. Eriksen, “Dropout from Farm-Based Day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in Norway: A Follow-Up Study,” *BioMed Central Geriatrics*, Vol. 20, pp. 428, Oct 2020. <http://dx.doi.org/10.1186/s12877-020-01826-y>
- [11] D. K. Haubenhofner, M. Elings, J. Hassink, and R. E. Hine, “The development of green car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Explore*, Vol. 6, No. 2, pp. 106–111, Mar/Apr 2010. <https://doi.org/10.1016/j.explore.2009.12.002>
- [12] J. Hassink, R. Simone, B. de Boer, B. Berget, and M. Elings, “Exploring the Role of Farm Animals in Providing Care at Care Farms,” *Animals*, Vol. 7, pp. 45, Jun 2017. <https://doi.org/10.3390/ani7060045>
- [13] B. de Boer, J. P. H. Hamers, H. C. Beerens, S. M. G. Zwakhalen, F. E. S. Tan, and H. Verbeek, “Green Care Farms as Innovative Nursing Homes, Promoting Activities and Social Interaction for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 18, pp. 40–46, Jan 2017. <http://dx.doi.org/10.1016/j.jamda.2016.10.013>
- [14] K. Hong, H. Jin, and H. Lee, “Gardening Program As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2, pp. 59–67, Mar, 2022.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59>
- [15] V. Braun and V.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 pp. 77 - 101, Jul 2008.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16] C. Leck, D. Upton, and N. Evans, “Growing well-beings: the positive experience of care farms,” *British Journal Health Psychol.* Vol. 20, pp. 745 - 762, Mar 2015. <http://dx.doi.org/10.1111/bjhp.12138>.
- [17] J. Hassink, M. Elings, M. Zweckhorst, N. van den Nieuwenhuizen, and A. Smit,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Attractive empowerment oriented and strengths based practices in the community,” *Health and Place*, Vol. 16, No. 3, pp. 423 - 430. May 2010,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09.10.016>
- [18] P. Währborg, I. F. Petersson, and P. Grahn, “Nature-assisted rehabilitation for reactions to severe stress and/or depression in a rehabilitation garden: Long-term follow-up including comparisons with a matched population-based reference cohort,” *Journal Rehabilitation Medicine*, Vol. 46, pp. 271 - 276, 2014.
- [19] L. L. Lee, A. Arthur, and M. Avis, “Using self efficacy theory to develop interventions that help older people overcome psychological barriers to physical activity: A discussion paper,”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5, No. 11, 1690 - 1699, Nov 2008.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8.02.012>

- [20]D. Laurin, R. Verreault, J. Lindsay, K. Mac Pherson, and K. Rockwood, "Physical activity and risk of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in elderly persons," *Archives of Neurology*, Vol. 58, pp. 498 - 504, Mar 2001. <https://doi.org/10.1001/archneur.58.3.498>
- [21]J. Verghese, R. B. Lipton, M. J. Katz, C. B. Hall, C. A. Derby, G. Kuslansky, A. F. Ambrose, M. Sliwinski and H. Buschke, "Leisure activities and the risk of dementia in the elderl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48, pp. 2508 - 2516, Jun 2003.<https://doi.org/10.1056/NEJMoa022252>
- [22]C. Gagliardi, S. Santini, F. Piccinini, P. Fabbietti, and M. Rosa, "A Pilot Programme Evaluation of Social Farming Horticultural and Occupational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Italy," *Health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 27, No. 1, pp. 207-214, Aug 2018. <https://doi.org/10.1111/hsc.12641>